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Does the Trustworthiness of Local Council and Executive still Matter?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Local Decentralization

김 정 속*
Jungsook Kim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이 연구는 지방정부 신뢰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분권화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Mayer et al.(1995)의 신뢰성 통합 모형을 적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두 주체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선의, 진실성의 신뢰성 요소들은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 인식 역시 지방정부 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지방분권 인식은 지방정부의 두 주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대해서만 조절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선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향후 지방분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논문 접수일: 2024. 10. 14. 심사기간: 2024. 10. 14. ~ 2024. 12. 3. 게재확정일: 2024. 12. 3.

□ 주제어: 지방정부 신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 지방분권의 조절효과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trustworthiness on trus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ecentralization. The reliability integration model of Mayer et al. (1995) was applied and analyz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model based on online survey data.

First, the trustworthiness factors of the ability, benevolence, and integrity of local councils and executives all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Second, the perception of decentralization also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 of decentraliz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ly on the benevolence of the executive branch among the two entities of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goodwill of local govern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balanced capacity of local councils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rengthen the level of local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 Keywords: Trust in Local Government, Trustworthiness of Local Council and Executive, the Moderating Effect of Local Decentralization

I. 서론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거리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김정숙·전미선, 2023).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복지, 보건,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대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는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호견제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방분권 수준을 강화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정부 신뢰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김관보 외., 2013; 김태형 외., 2019; 박정호, 2014; 왕혜진, 2022; 정광호 외., 2011; 최예나, 2016; 현승숙·이승중, 2007). 신뢰는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사회구성원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기제이다(Carnevale, 1995; Uslander, 2002). 시민들의 정부신뢰는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순응을 불러올 수 있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길에서 나선 한계들을 해결할 수 있다(왕혜진, 2022; 손호중, 2016).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내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 역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순응을 얻고, 이를 토대로 지역 단위의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지방의회를 통해 대표되고, 이러한 의사를 모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집행한다.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방정부 신뢰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를 통합된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중앙정부, 국회 등 타 기관과 분리만을 통해 살펴보고 있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김태형 외., 2019; 왕혜진, 2022; 정광호 외., 2011; 최예나, 2016; 최희성·이시원, 2016).

한편, Mayer 외(1995)는 신뢰의 선행요인으로서 신뢰성을 주목한 바 있다. 신뢰성은 능력, 선의, 진실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개념들은 신뢰 주체가 신뢰 당사자를 신뢰하는 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Mayer et al., 1995). 정부신뢰에 관한 몇몇 연구에서 이러한 3가지 핵심을 구분하여 선행요인으로 다루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김정숙·조운직, 2020; Grimmelikhuijsen, 2010).

그러나 지방정부 역시 신뢰 주체와 신뢰 대상자로 구분되며 두 당사자들의 상호관계에 따라 신뢰가 형성된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신뢰성 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정부 신뢰성과 신뢰 간 관계를 학술적으로 정리한다. 3장에서는 지방정부 수준의 데이터와 분석틀을 통해 연구설계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분석을 시행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지방정부 신뢰와 신뢰성

정부신뢰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 또는 통치제도가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 또는 기대감으로 정의된다(박종민·배정현, 2011; 이재혁, 1998; 서정욱 외., 2021; Miller, 1974). 정부신뢰는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전제로서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다수의 연구자들에게 주된 연구주제로 다뤄져왔다(Barber, 1983; Gamson, 1968; Miller, 1974; Finer, 1970; 박종민·배정현, 2011;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김대욱·이승중, 2008).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정부신뢰를 신뢰 주체인 국민과 신뢰 대상자인 정부 간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신뢰 주체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산출을 가져오는 대상이자, 단순히 기관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의 통치제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정부신뢰의 정의가 갖는 포괄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지방정부 신뢰 역시 정부신뢰와 마찬가지로 대상 기관에서의 차이만 지닐 뿐, 신뢰자와 신뢰 대상 간 관계 및 정책 산출에 대한 평가,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방정부 신뢰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 태도”로 정의된다(김정숙·전미선, 2023; 101).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신뢰의 주체인 시민이 신뢰의 대상인 정부를 신뢰하는지로 볼 수 있으며, 시민이 갖는 정부에 대한 태도·인식과 신뢰의 대상인 정부가 정부의 기능·가치를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정숙·정다정, 2019; 김태형 외., 2019; 김정숙·전미선, 2023). 따라서 정부신뢰 개념 안에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평가·태도 역시 포함한다고 할 수 있

다(Miller, 1974).

지방정부 신뢰는 중앙정부 신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Rahn & Rudolph, 2005; Hetherington & Nugent, 2001; Uslaner, 2001). 서정욱 외(2021)는 정부를 기능, 제도, 결사체 차원으로 살펴보면, 정부신뢰 개념 내에 세 가지 차원을 포괄하여 정의하였다. 특히 지방정부 신뢰를 살펴볼 때, 기관신뢰 차원으로 관료조직인 지방자치단체와 선출직인 지방의회를 구분하는 개념을 제시하거나, 통치체제를 포괄한 정의를 살펴보고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유사한 틀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선출직으로서 지방의회가 갖는 중요성이 있으나, 한국적 맥락에서 지방의회가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종속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은 대다수 중앙정부 단위에서 형성·집행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들을 분리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해 서로 구분되는 신뢰를 형성한다는 논의도 다수 존재한다(김태형 외., 2019; 최예나, 2018; 현승숙·이승중, 2007). 김태형 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는 서로 다른 고유의 특성과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2019).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중앙정부와 달리 일정 지역만을 관할구역으로 삼기 때문에 해당 지역만이 갖는 특수성이 반영된다(김태형 외., 2019). 따라서 시민들이 중앙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만족하거나, 지방정부가 주민들에 대해 갖는 대응성이 만족스럽다면 지방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승숙·이승중(2007) 역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갖는 신뢰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 보건, 문화 등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신뢰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현승숙·이승중, 2007). 이러한 신뢰의 차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편, 최예나의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정부와 개인 사이에 공유되는 게임의 규칙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며,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를 구분한다(2018; 7). 이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게임의 규칙에서 차이를 불러오는 것은 시민들이 지각하는 공공가치에 대한 판단이며, 공공가치 중 민주성(대응성)은 중앙정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지방정부 신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시민들이 인식할 때 공공가치를 담당하는 정부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시민들이 공공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른 시민들의 효능감 인식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Jennings(1998)는 시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물으면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리더십, 권력, 정책권한 등을 떠올리는 반면,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대표성이나 책임성 등을 대답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중앙정부가 정책형성 및 예산배분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반면, 실제 지방정부가 시민들이 인식하는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와 행정부로 구분되어 있어, 이 둘을 구분하여 신뢰를 다룰 필요가 있다(Kelleher & Wolack, 2007; Zmerli & Newton, 2017; 104-124; 정광호 외., 2011; 현승숙·이승중, 2007). 정광호 외(2011)는 지방정부 신뢰를 다룰 때 각 기관의 역할 및 주민 선출 방식 여부에 따라 시군구청,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각각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기초 단위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는 핵심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최희성·이시원, 2016).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등을 수행한다. Fitzgerald & Wolak(2016)은 시민들은 정치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정부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시민과 더욱 가까운 지방정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지닐 때 지방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연구는 지방정부 중 지방의회의 역할을 정의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때 지방정부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주체로서, 정책 집행, 재무 관리,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유익환, 2015). 앞서 김태형 외(2019)와 현승숙·이승중(2007)의 연구에서 언급했던 주민들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부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과 접촉점이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민들은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주체들이 신뢰성을 지닐 때 지방정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Mayer 외는 신뢰와 신뢰성 개념을 구분하여 신뢰성이 신뢰의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1995). 즉, Mayer 외(1995)의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신뢰의 선행요인으로서 신뢰 주체의 특성, 신뢰 대상의 신뢰성을 구분하였고, 이후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신뢰성을 신뢰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실증연구에 적용해 온 것이다(김정숙·조윤직, 2020; Houston & Harding, 2013; Grimmelikhuijsen, 2010; Porumbescu, 2015; Schoorman et al.,

2007; Fricker et al., 2014; Hasel & Grover,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가 신뢰성을 갖추었을 때 리스크를 감수하고 정책 산출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뢰성에서 신뢰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신뢰성의 세 가지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은 “특정 영역 내에서 당사자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술, 역량 및 특성의 집합”을 의미한다(Mayer et al., 1995; 717). 이는 신뢰 대상자가 개인이나 조직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신뢰 주체의 인식을 의미한다. 둘째, 선의는 “수탁자가 신뢰자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한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한다(Mayer et al., 1995; 720). 선의는 신뢰 주체가 느끼기에 신뢰 대상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셋째, 진실성은 “신뢰 주체가 수용하는 일련의 원칙을 신뢰 대상자가 준수한다는 인식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Mayer et al., 1995; 719). 이는 신뢰 대상자가 일관성, 정직성, 공정성 등을 준수한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2.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

지방정부 신뢰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뢰를 다루며,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뢰성, 공정성, 삶의 만족도, 대인신뢰, 주민접촉, 사회신뢰, 투명성 등을 다루고 있다(김정숙·조윤직, 2020; 서정욱 외., 2021; 현승숙·이승중, 2007; Houston & Harding, 2013; Porumbescu, 2015). 이외에도 지방의회 신뢰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신뢰성, 의원들의 윤리적 행동 등이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Downe et al., 2013; Grimmeliikhuijsen, 2010). 또한 타 연구들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지방정부 신뢰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영향요인으로 온라인 참여, 사회자본, 성과 등이 신뢰 형성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규명하였다(Kim & Lee, 2012; Fitzgerald & Wolak, 2016).

이러한 연구 경향들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신뢰의 선행요인으로서 신뢰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국내·외 다수의 문헌들에서는 지방정부 신뢰성과 신뢰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 지방정부 신뢰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다루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지방자치의 경험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맥락 하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신뢰 대상의 윤리적 측면, 성과, 투명성 등 다양한 차원을 다룬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신뢰 개념 내에 신뢰자와 신뢰 대상 간 관계 및 정책 산출에 대한 기대·평가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

향요인 또한 다차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벗어나 두 주체를 분리하여 다루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신뢰의 선행요인으로서 신뢰성을 주된 영향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Kiyonari et al., 1995; Mayer et al., 1995; Colquitt et al., 2007; Lind, 2001; Sekhon et al., 2014).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신뢰자(trustor)와 신뢰 대상자(trustee)로 구분되며, 신뢰자의 특성과 신뢰 대상자의 신뢰성이 종합될 때 형성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뢰는 신뢰하는 주체와 신뢰받는 대상으로 구분되고, 신뢰받는 대상이 특정 행동을 하거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가질 때 신뢰 당사자가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신뢰성의 3가지 요소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우선 능력은 신뢰자가 신뢰 대상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 및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신뢰 대상자가 능력을 갖추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Kiyonari 외(1995)는 신뢰성과 신뢰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서 어떤 점이 취약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Rousseau 외(1998)가 정의한 신뢰 개념 내에 취약성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와 확신에 찬 기대가 포함된다는 것, Good(1988)가 신뢰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에 기반하여 형성된다고 본 점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Kiyonari 외(1995)의 설명에 서처럼 특정 상황에서 취약성이 있으나 신뢰자는 신뢰 대상자의 다른 능력적인 요소로 인해 취약성을 기꺼이 감수하고 특정 결과물(정책, 공공서비스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Colquitt 외(2007)는 신뢰 대상자의 능력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뢰 대상의 능력이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선의는 신뢰 주체가 느끼기에 신뢰 대상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치있고 필요한 공공서비스 및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가를 뜻한다. 엄밀히 말해 선의는 신뢰 주체가 가진 동기와 의도를 신뢰 대상자가 제대로 반영하며, 신뢰 주체를 위해 행동하는 이타주의적 경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Grimmelikhuisen et al. 2013),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그들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질 때 그들을 신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Lind(2001)가 설명한 선의 개념 안에 신뢰 주체와 신뢰 대상자 간 정서적 애착을 만들고,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간 배려와 지원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 것과 연관된다. 신뢰가 상호관계에 기반한 인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의를 지닐 때 지역 주민들은 이에 기반하여 그들을 신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실성은 신뢰 대상자가 일련의 공정성, 정직성, 일관성 등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지역 주민들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정성, 정직성, 일관성 등을 준수한다고 인식할 때 그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Mayer 외(1995)는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신뢰 받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는 이유는 거래의 위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Ring & Van de Ven(1992)의 입장과 유사한 접근으로, 신뢰 대상자의 신뢰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거래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있는 것이다. 또한 Lind(2001)는 진실성이 개인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Sekhon 외(2014)는 신뢰성이 신뢰 대상자의 특성으로서, 신뢰의 주체는 대상자의 이러한 암묵적 가치와 이전 행동의 요소들을 토대로 신뢰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즉, 진실성은 신뢰 주체가 투사하는 평판의 요소이며, 이러한 신뢰 대상자들의 전략과 행동에 따라 신뢰를 높이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Sekhon et al., 2014).

3.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효과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관계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정도”로 정의된다(최영출, 2013; 370). 한국은 중앙집권적 전통을 가진 국가로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 재정, 조직 등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왔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온 권한의 정도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갖는 자율성의 정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시민들은 지방분권을 필요로 하거나 가치있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지방분권이 민주성과 같은 다른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¹⁾ 지난 2021년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실시한 “2021년도 대국민 지방분권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62.9%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과반수 이상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재원 부족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의지/역량 부족과 지방의원의 의지/역량 부족 등에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시민들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나, 지방정부 두 주체의 의지 및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수

1) 이를 두고 유재원은 한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분권에 대한 인식이 분권지상주의, 분권도구주의, 분권중립주의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2018). 이러한 인식은 지방분권을 민주주의와 같은 궁극적 가치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지방분권을 통해 다른 가치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보는 입장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Lee와 Suh는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재정분권, 지방분권 등이 가진 효용을 근거로 분권화가 지방정부 신뢰를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정립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 간 차이를 규명한 바 있다(2021).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지방분권 인식이 아니라 종속변수로서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여 명확한 인과관계의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다른 연구에서는 참여 민주주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신뢰형성에 긍정적이라거나, 경쟁을 통해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Ligthart & van Oudheusden, 2015; Oates, 1999; Brennan & Buchanan, 1980).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지방분권 인식이 지방정부의 두 주체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신뢰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분권 인식은 신뢰 주체의 지방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신뢰는 신뢰 주체와 대상 간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특성을 지니는데, 신뢰 대상이 지닌 능력, 선의, 진실성과 같은 신뢰성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신뢰 주체가 지방분권을 필요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거나 약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지방분권 인식은 그 자체로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갖는 지방분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지방자치를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두 주체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 지방정부의 두 주체가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두 주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지방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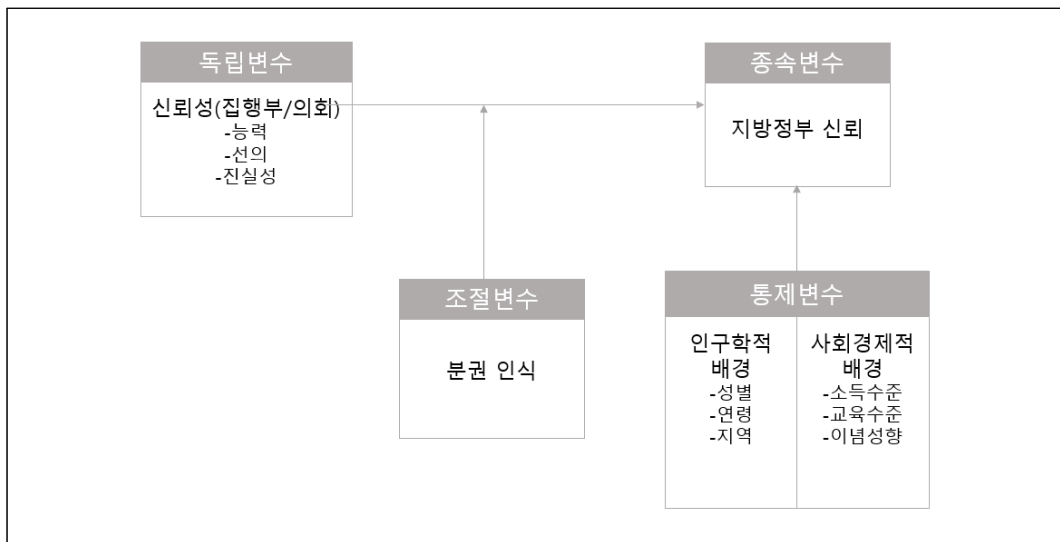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지방정부의 두 주체에 대한 유용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재정분권 혹은 지방분권을 유용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Oates(1999: 1132)는 지방자치가 실험의 장으로서 '실천을 통한 학습이 있는 불안정한 정보 환경에서는 사회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는데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고 보았고, Ligthart와 van Oudheusden(2015)는 재정 분권화가 보다 효과적인 공공 정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유용성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갖는 강점과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이러한 유용성을 전제할 때 지방정부의 두 주체가 갖는 신뢰성이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의 분석틀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신뢰가 종속변수이며,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갖는 신뢰성으로서, 능력, 선의, 진실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조절변수로서 시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활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인구적 특성인 연령, 성별, 지역을 살펴보고,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념성향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갖는 신뢰성이 시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22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²⁾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들

2) 이 연구는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은 사전

중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전국의 19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지방정부 신뢰,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 지방의회의 신뢰성, 인구학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 등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지역 등에서 다음의 <표 1>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인적 특성	구분	N(명)	비율(%)
성별	남자	1,273	50.9
	여자	1,226	49.1
연령	만 20대	493	19.7
	만 30대	480	19.2
	만 40대	567	22.7
	만 50대	637	25.5
	만 60세 이상	322	12.9
권역	서울	473	18.9
	부산	160	6.4
	대구	114	4.6
	인천	146	5.8
	광주	68	2.7
	대전	73	2.9
	울산	57	2.3
	경기	676	27.1
	강원	72	2.9
	충북	75	3.0
	충남	96	3.8
	전북	81	3.2
	전남	79	3.2
	경북	122	4.9
	경남	154	6.2
	제주	37	1.5
	세종	16	0.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43	9.7
	200-300만원 미만	355	14.2

에 설문조사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온라인 패널을 갖추고 있다.

인적 특성	구분	N(명)	비율(%)
	300-400만원 미만	482	19.3
	400-500만원 미만	319	12.8
	500-600만원 미만	368	14.7
	600-700만원 미만	206	8.2
	700-800만원 미만	172	6.9
	800-900만원 미만	154	6.2
	900만원 이상	200	8.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6	0.6
	고졸	430	17.2
	대학 재학	139	5.6
	대졸	1,642	65.7
	대학원 재학 이상	272	10.9

이 연구는 위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Stata 17 버전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신뢰성으로서 능력, 선의, 진실성을 독립변수로 삼았고, 조절변수로서 시민들의 지방분권 인식을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방정부 신뢰이다. 지방정부 신뢰에 관한 다수의 실증연구들에서 지방정부 신뢰를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김정숙·전미선, 2023; 유두호·유나리, 2020; 최예나, 2016), 정부신뢰의 하위 내용들에 대한 신뢰 정도(오경민·박홍식, 2002), 정부를 구성하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의 평균(김정숙·정다정, 2019; 김정숙·최선미, 2019) 등을 활용하였다. 오경민·박홍식(2002)은 정부신뢰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신뢰를 3가지 개념으로 구성한 바 있다. 즉, 그들은 정부신뢰를 "1) 정부 때문에 손해가 생겨도 그것을 어느 정도나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지, 2) 정부결정에 대한 믿음은 어떤지, 3) 정부의 말을 얼마나 수용하고 따르는지"로 측정할 수 있다(오경민·박홍식, 2002: 119).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정부신뢰 개념요소를 차용하여 지방정부의 신뢰를 1)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정도, 2) 지방정부의 결정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정도, 3)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한 불만을 지방의원에게 이야기할 경우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응답 척도는 매우 불신(매우 반대)=1, 매우 신뢰(매우 찬성)=5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의 3가지 요인인 능력, 선의, 진실성이다. Mayer와 그의 동료들은 조직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신뢰성의 3가지 요인을 들어 신뢰에 관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1995). 이후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그들의 연구를 인용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해 나갔으며(김정숙·조운직, 2020; Kiyonari, et al., 2006; Sekhon, et al., 2014; Tomlinson, et al., 2020), 적용 대상은 조직에서 공공 부문이나 정부로 확장되었다(Albrecht, 2002; Houston & Harding, 2013; Grimmelikhuijsen & Meijer, 2014; 김정숙·조운직, 2020).

첫 번째 요인인 능력은 "특정 영역 내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역량, 특성의 집합"이다(Mayer et al., 1995; 717). 이는 신탁자(trustor)와 수탁자(trustee) 간 관계에서, 수탁자가 특정 영역에서 매우 유능하기 때문에, 위탁자는 수탁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문항으로 "수탁자는 수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수탁자는 해야 할 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수탁자는 수탁자가 하려는 일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탁자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등을 활용하였다(Mayer & Davis, 1999). 이러한 설문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능력을 실제 측정하는 내용을 주로 신뢰의 대상인 수탁자가 성과 충족을 위한 전문적 지식, 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지방정부임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의 성과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및 특성으로서 "일처리 능력이 있다", "효율적이다", "혁신적이다"라는 세 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선의는 "수탁자가 자기 중심적인 이익 동기를 제외하고 신탁자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정도"이다(Mayer et al., 1995; 718). 예를 들어 멘토(mentor)와 피보호자(protege)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멘토는 어떠한 외재적 보상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호자를 돕고자 노력하는 것을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Mayer와 Davis(1999)는 선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문항으로 "수탁자는 나의 복지에 관심이 많다.", "나의 요구와 기대는 수탁자에게 중요하다.", "수탁자는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돌본다.", "수탁자는 나를 도우려고 나설 것이다." 등을 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지방정부에 적용하여 "국민의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잘 안다", "스스로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추구한다", "국민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로 측정하였다.

진실성은 "수탁자가 신뢰할 만한 일련의 원칙을 고수하는 정도"를 뜻한다(Mayer et al., 1995; 719). 개인의 진실성은 몇 가지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McFall, 1987), 신탁자와 수탁자 간 관계에서 의미하는 진실성은 수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및 원칙이 포함된 것을 뜻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진실성을 "수탁자가 자신이 한 말을 고수할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수탁자의 행동과 행태가 그리 일치하지 않는다.”, “건강한 원칙이 수탁자의 행동을 이끈다.” 등으로 측정하였다(Mayer & Davis, 1999). 이를 지방정부에 적용하면, 시민들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가치를 충족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진실을 말한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개방적이다.”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인 분권 인식은 시민들이 지방분권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를 의미한다.

〈표 2〉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명	구성개념	측정
종속변수		지방정부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정도• 지방정부의 결정은 옳다고 받아들이는 정도•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한 불만을 지방의원에게 이야기할 경우,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매우 반대=1~매우 찬성=5
독립 변수	신뢰성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처리 능력• 효율적• 혁신적	
		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 파악 정도• 스스로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 국민의 문제를 이해하는 정도	
		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실을 말한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개방적	
조절변수		분권 인식	지난 20여 년간 지방자치를 하면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	
통제 변수	인구학적 배경	성별	남성: 1, 여성: 2	더미
		연령	연령(만)	연속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더미
	사회경제적 배경	소득수준	① 월 200만원 미만 ② 월 200만원~300만원미만 ③ 월 300만원~400만원 미만 ④ 월 400만원~500만원 미만 ⑤ 월 500만원~월 600만원 미만 ⑥ 월 600만원~월 700만원 미만 ⑦ 월 700만원~월 800만원 미만 ⑧ 월 800만원~월 900만원 미만 ⑨ 월 900만원 이상	더미
		교육수준	중졸이하/고졸/대학 재학/대졸/대학원 재학	더미
		이념성향	정치성향이 진보적인 정도	11점

IV. 분석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각 변수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0.8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요인분석 결과값인 요인적재치는 0.6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표 3>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변수명		요인적재치	아이겐 값	신뢰도 (Cronbach's alpha)
독립 변수	신뢰성 (지방자치 단체)	능력	일처리 능력	0.7255	10.48632	0.8870
			효율적	0.7093		
			혁신적	0.654		
		선의	국민의 필요에 따른 정책수요	0.7269	9.31487	0.8895
			국민의 이익 추구	0.6797		
			국민의 문제 이해	0.735		
		진실성	진실을 말함	0.611	7.22673	0.8230
			업무 공개	0.5997		
	신뢰성 (의회)	능력	일처리 능력	0.796	2.15469	0.9126
			효율적	0.7758		
			혁신적	0.7911		
		선의	국민의 필요에 따른 정책수요	0.7515	1.60043	0.8979
			국민의 이익 추구	0.7696		
			국민의 문제 이해	0.7369		
		진실성	진실을 말함	0.7749	1.51703	0.8508
			업무 공개	0.7293		

2. 기술통계

변수별 기술통계는 아래의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신뢰는 평균 2.36이며, 표준편차 0.76을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 중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의 3가지 요

소는 능력, 선의, 진실성으로, 능력은 평균 2.67, 표준편차 0.79를 보이고 있으며, 선의는 평균 2.61, 표준편차 0.82를 보인다. 진실성은 평균 2.57, 표준편차 0.83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의회의 신뢰성은 능력은 평균 2.50, 표준편차 0.81을 보이고 있으며, 선의는 평균 2.50, 표준편차 0.82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진실성은 평균 2.47, 표준편차 0.83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지방분권 인식은 평균 2.97, 표준편차 0.84를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중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분권 인식이며, 가장 낮은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기술통계(관측치: 2,499)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지방정부 신뢰	2.36	0.76	1	5
독립 변수	신뢰성 (지방자치 단체)	능력	2.67	0.79	1	5
		선의	2.61	0.82	1	5
		진실성	2.57	0.83	1	5
	신뢰성 (의회)	능력	2.50	0.81	1	5
		선의	2.50	0.82	1	5
		진실성	2.47	0.83	1	5
조절 변수	지방분권 인식		2.97	0.84	1	5
통제 변수	인구학적 배경	성별	1.49	0.50	1	2
		연령	43.30	12.72	19	69
		지역	서울=473(18.9%), 부산=160(6.4%), 대구=114(4.56%), 인천=146(5.84%), 광주=68(2.72%), 대전=73(2.92%), 울산=57(2.28%), 경기=676(27.05%), 강원=72(2.88%), 충북=75(3%), 충남=96(3.84%), 전북=81(3.24%), 전남=79(3.16%), 경북=122(3.88%), 경남=154(6.16%), 제주=37(1.48%), 세종=16(0.64%)			
	사회경제적 배경	소득수준	4.40	2.36	1	9
		교육수준	3.69	0.90	1	5
		이념성향	6.34	1.83	1	11

〈표 5〉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신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과 의회의 신뢰성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지방분권 인식을 조절변수로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선의, 진실성과 의회의 능력, 선의, 진실성 모두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신뢰와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절변수인 지방분권 인식 역시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신뢰와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수 중 연령과 지역은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신뢰와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과 이념성향은 지방정부 신뢰와 0.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지방정부 신뢰가 더 낮음을 의미하며, 이념성향의 경우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지방정부 신뢰가 낮음을 의미한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지방정부 신뢰		(1)	1					
지방 자치 단체	능력	(2)	0.5144**	1				
	선의	(3)	0.5329**	0.8141**	1			
	진실성	(4)	0.5008**	0.7493**	0.7995**	1		
지방 의회	능력	(5)	0.4892**	0.7178**	0.6991**	0.6583**	1	
	선의	(6)	0.4970**	0.6909**	0.7434**	0.6984**	0.8351**	1
	진실성	(7)	0.4685**	0.6486**	0.6829**	0.6924**	0.8184**	0.8401**
분권 인식		(8)	0.2179**	0.2947**	0.3082**	0.2806**	0.3079**	0.3085**
성별		(9)	-0.0589**	-0.0453*	-0.0778**	-0.0868**	0.0144	-0.0321
연령		(10)	0.1198**	0.0365	0.0275	-0.0052	-0.019	0.0019
지역		(11)	0.0560**	0.0342	0.0361	0.0441*	0.0365	0.0282
소득수준		(12)	0.001	-0.0235	-0.0036	-0.0021	-0.0636**	-0.0439*
교육수준		(13)	0.0147	-0.0219	0.0042	-0.0015	-0.0594**	-0.0474*
이념성향		(14)	-0.0581**	-0.0462*	-0.0422*	-0.0664**	0.0078	-0.009
변수		(8)	(9)	(10)	(11)	(12)	(13)	(14)
분권인식		(8)	1					
성별		(9)	0.0245	1				
연령		(10)	0.0488*	-0.005	1			
지역		(11)	-0.017	-0.022	0.0436*	1		
소득수준		(12)	0.0159	-0.0055	0.0391	-0.0805**	1	
교육수준		(13)	0.0077	-0.0876**	-0.025	-0.0696**	0.2327**	1
이념성향		(14)	0.0692**	0.0454*	-0.0266	0.0182	0.0436*	0.0477*

* $p < 0.1$, ** $p < 0.05$

3.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모형은 통제모형, 신뢰성모형, 분권인식모형, 종합모형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모형은 (1)에서 (4)로 갈수록 adj R^2 값이 0.021에서 0.324로 높아져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은 통제모형으로,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이다. adj R^2 값은 0.021이며, F값은 9.96이다. 통제변수 중 성별과 이념성향은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수준 99%에서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의미하며, 보수적인 성향보다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지방정부 신뢰가 낮아짐을 뜻한다. 또한 연령과 지역은 유의수준 99%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방정부 신뢰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모형 (2)는 신뢰성 모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선의, 진실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adj R^2 값은 0.322이며, F값은 133이다. 독립변수인 신뢰성의 세 가지 요소인 능력, 선의, 진실성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수준 99%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선의, 진실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시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분권인식 모형으로 조절변수인 시민들의 지방분권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adj R^2 값은 0.069이며, F값은 27.35이다. 지방분권 인식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수준 99%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종합 모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선의, 진실성, 조절변수인 시민들의 지방분권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adj R^2 값은 0.324이며, F값은 120.6이다. 지방자치단체 신뢰성의 세 가지 요소인 능력, 선의, 진실성은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수준 99%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절변수인 지방분권 인식 역시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수준 95%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

지방정부 신뢰	모형(1) 통제모형	모형(2) 신뢰성모형	모형(3) 분권인식모형	모형(4) 종합모형
능력		0.189*** (6.37)		0.184*** (6.21)
선의		0.246*** (7.52)		0.238*** (7.28)
진실성		0.159*** (5.55)		0.156*** (5.42)
분권 인식			0.220*** (11.34)	0.044** (2.54)
성별	-0.053*** (-2.66)	-0.013 (-0.78)	-0.058*** (-2.97)	-0.015 (-0.90)
연령	0.116*** (5.86)	0.105*** (6.37)	0.105*** (5.42)	0.103*** (6.25)
지역	0.052*** (2.61)	0.031* (1.86)	0.056*** (2.89)	0.032* (1.95)
소득수준	-0.002 (-0.09)	0.001 (0.05)	-0.004 (-0.18)	0 (0.02)
교육수준	0.02 (0.95)	0.023 (1.33)	0.019 (0.93)	0.022 (1.32)
이념성향	-0.054*** (-2.74)	-0.027 (-1.61)	-0.070*** (-3.59)	-0.031* (-1.84)
<i>N</i>	2,499	2,499	2,499	2,499
<i>R</i> ²	0.023	0.325	0.071	0.327
adj <i>R</i> ²	0.021	0.322	0.069	0.324
<i>F</i>	9.96	133	27.35	120.6

* $p < 0.1$, ** $p < 0.05$

지방의회의 신뢰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모형은 통제모형, 신뢰성모형, 분권인식모형, 종합모형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모형은 (1)에서 (4)로 갈수록 adj R^2 값이 0.021에서 0.293으로 높아져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은 통제모형으로,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이다. $\text{adj } R^2$ 값은 0.021이며, F값은 9.96이다. 통제변수 중 성별과 이념성향은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수준 99%에서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의미하며, 보수적인 성향보다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지방정부 신뢰가 낮아짐을 뜻한다. 또한 연령과 지역은 유의수준 99%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방정부 신뢰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모형 (2)는 신뢰성 모형으로 지방의회의 능력, 선의, 진실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text{adj } R^2$ 값은 0.29이며, F값은 114.5이다. 독립변수인 신뢰성의 세 가지 요소인 능력, 선의, 진실성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수준 99%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능력, 선의, 진실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시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분권인식 모형으로 조절변수인 시민들의 지방분권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text{adj } R^2$ 값은 0.069이며, F값은 27.35이다. 지방분권 인식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수준 99%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종합 모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선의, 진실성, 조절변수인 시민들의 지방분권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text{adj } R^2$ 값은 0.293이며, F값은 104.4이다. 지방의회 신뢰성의 세 가지 요소인 능력, 선의, 진실성은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수준 99%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절변수인 지방분권 인식 역시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수준 95%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에 공공 및 민간 조직들을 대상으로 신뢰성과 신뢰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보여진다(Mayer et al., 1995; 김정숙·조윤직, 2020; Houston & Harding, 2013). 김정숙·조윤직(2020)의 연구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신뢰성의 요소인 능력, 선의, 진실성, 투명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임을 확인하였고, Houston & Harding(2013)은 정부 행정가를 대상으로 한 신뢰 형성에서 그들의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역시 그들이 능력, 선의, 진실성이라는 신뢰성 요소를 갖추었을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다.

〈표 7〉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 의회의 신뢰성

지방정부 신뢰	모형(1) 통제모형	모형(2) 신뢰성모형	모형(3) 분권인식모형	모형(4) 종합모형
능력		0.222*** (6.65)		0.214*** (6.4)
선의		0.216*** (6.1)		0.208*** (5.87)
진실성		0.113*** (3.32)		0.110*** (3.23)
분권 인식			0.220*** (11.34)	0.055*** (3.09)
성별	-0.053*** (-2.66)	-0.046*** (-2.68)	-0.058*** (-2.97)	-0.047*** (-2.77)
연령	0.116*** (5.86)	0.126*** (7.44)	0.105*** (5.42)	0.123*** (7.26)
지역	0.052*** (2.61)	0.038** (2.24)	0.056*** (2.89)	0.040** (2.34)
소득수준	-0.002 (-0.09)	0.022 (1.28)	-0.004 (-0.18)	0.021 (1.21)
교육수준	0.02 (0.95)	0.043** (2.44)	0.019 (0.93)	0.042** (2.38)
이념성향	-0.054*** (-2.74)	-0.055*** (-3.25)	-0.070*** (-3.59)	-0.059*** (-3.48)
N	2,499	2,499	2,499	2,499
R ²	0.023	0.293	0.071	0.296
adj R2	0.021	0.29	0.069	0.293
F	9.96	114.5	27.35	104.4

* p < 0.1, ** p < 0.05

4.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효과

다음은 지방분권 인식이 지방자치단체 신뢰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모형이며, adj R²값은 0.324이며, F값은 109.6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지방분권 인식의 상호작용항은 지방정부 신뢰에 통

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다.

모형 (2)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와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모형이며, adj R²값은 0.324이며, F값은 109.7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와 지방분권 인식의 상호작용항은 지방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은 지방자치단체의 진실성과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모형이며, adj R²값은 0.324이며, F값은 93.15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진실성과 지방분권 인식의 상호작용항은 지방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모형 (4)는 종합모형으로 세 가지 상호작용항이 모두 포함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와 지방분권 인식의 상호작용항은 지방정부 신뢰에 신뢰수준 95%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분권인식의 조절효과 -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신뢰	모형(1) 능력*분권 조절모형	모형(2) 선의*분권 조절모형	모형(3) 진실성*분권 조절모형	모형(4) 조절효과 종합모형
능력	0.184*** (6.2)	0.185*** (6.23)	0.184*** (6.2)	0.188*** (6.31)
선의	0.238*** (7.28)	0.237*** (7.25)	0.238*** (7.27)	0.235*** (7.17)
진실성	0.156*** (5.42)	0.155*** (5.38)	0.156*** (5.42)	0.154*** (5.34)
분권 인식	0.044** (2.49)	0.046*** (2.62)	0.044** (2.51)	0.046*** (2.6)
능력*분권 인식	-0.003 (-0.18)			-0.046 (-1.33)
선의*분권 인식		0.013 (0.79)		0.074** (1.99)
진실성*분권 인식			-0.001 (-0.03)	-0.025 (-0.76)
성별	-0.015 (-0.91)	-0.014 (-0.86)	-0.015 (-0.90)	-0.015 (-0.91)
연령	0.103*** (6.25)	0.103*** (6.23)	0.103*** (6.25)	0.103*** (6.21)
지역	0.032* (1.95)	0.032* (1.93)	0.032* (1.95)	0.032* (1.92)

지방정부 신뢰	모형(1) 능력*분권 조절모형	모형(2) 선언*분권 조절모형	모형(3) 진실성*분권 조절모형	모형(4) 조절효과 종합모형
소득수준	0 (0.02)	0 (0.02)	0 (0.02)	0 (0)
교육수준	0.022 (1.32)	0.023 (1.33)	0.022 (1.32)	0.023 (1.34)
이념성향	-0.030* (-1.83)	-0.031* (-1.86)	-0.031* (-1.83)	-0.030* (-1.79)
<i>N</i>	2,499	2,499	2,499	2,499
<i>R</i> ²	0.327	0.327	0.327	0.328
adj <i>R</i> ²	0.324	0.324	0.324	0.324
<i>F</i>	109.6	109.7	109.6	93.15

* $p < 0.1$, ** $p < 0.05$

다음은 분권인식이 지방의회의 신뢰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지방의회의 능력과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모형이며, adj R^2 값은 0.293이며, F 값은 94.97이다. 지방의회의 능력과 지방분권 인식의 상호작용항은 지방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는 지방의회의 선언과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모형이며, adj R^2 값은 0.324이며, F 값은 109.7이다. 지방의회의 선언과 지방분권 인식의 상호작용항은 지방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은 지방의회의 진실성과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모형이며, adj R^2 값은 0.324이며, F 값은 93.15이다. 지방의회의 진실성과 지방분권 인식의 상호작용항은 지방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모형 (4)는 종합모형으로 세 가지 상호작용항이 모두 포함될 때, 상호작용항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분권인식의 조절효과 -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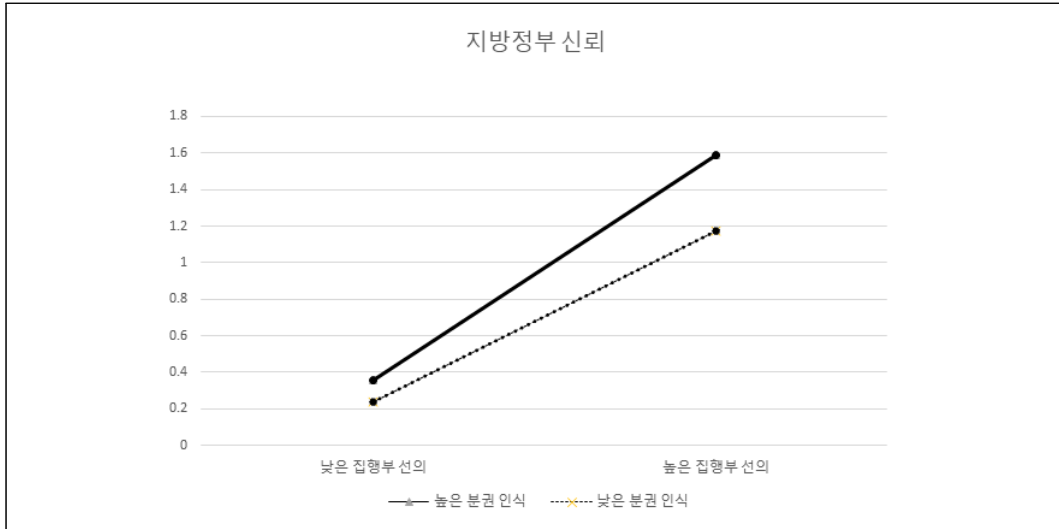
지방정부 신뢰	모형(1) 통제모형	모형(2) 신뢰성모형	모형(3) 분권인식모형	모형(4) 종합모형
능력	0.214*** (6.39)	0.214*** (6.39)	0.214*** (6.4)	0.215*** (6.4)

지방정부 신뢰	모형(1) 통제모형	모형(2) 신뢰성모형	모형(3) 분권인식모형	모형(4) 종합모형
선의	0.207*** (5.84)	0.208*** (5.86)	0.208*** (5.84)	0.207*** (5.82)
진실성	0.109*** (3.22)	0.109*** (3.21)	0.108*** (3.19)	0.109*** (3.2)
분권 인식	0.058*** (3.2)	0.057*** (3.16)	0.059*** (3.22)	0.059*** (3.22)
능력*분권 인식	0.015 (0.86)			0.01 (0.26)
선의*분권 인식		0.011 (0.66)		-0.016 (-0.42)
진실성*분권 인식			0.017 (0.96)	0.022 (0.57)
성별	-0.046*** (-2.70)	-0.046*** (-2.71)	-0.046*** (-2.69)	-0.046*** (-2.70)
연령	0.123*** (7.24)	0.123*** (7.23)	0.123*** (7.24)	0.123*** (7.25)
지역	0.040** (2.34)	0.040** (2.33)	0.039** (2.33)	0.039** (2.33)
소득수준	0.021 (1.23)	0.021 (1.21)	0.021 (1.21)	0.021 (1.22)
교육수준	0.041** (2.37)	0.042** (2.39)	0.042** (2.4)	0.042** (2.37)
이념성향	-0.060*** (-3.52)	-0.060*** (-3.51)	-0.060*** (-3.52)	-0.060*** (-3.51)
<i>N</i>	2,499	2,499	2,499	2,499
<i>R</i> ²	0.296	0.296	0.296	0.296
adj <i>R</i> ²	0.293	0.293	0.293	0.292
<i>F</i>	94.97	94.93	95	80.34

* $p < 0.1$, ** $p < 0.05$

지방분권 인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갖는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높은 선의를 가질 때 지방정부 신뢰가 더 높아지며, 이는 높은 지방분권 인식을 가질 시민이, 낮은 지방분권 인식을 가진 시민에 비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선의와 지방분권 인식 간 조절효과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주민들이 신뢰를 형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모두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능력, 선의, 진실성은 시민들이 지방정부를 신뢰하는데 긍정적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중앙정부, 일반 조직 등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신뢰의 선행요인으로서 신뢰성을 규명한 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구분하여 각 대상별 신뢰성이 지방정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지방분권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대해서만 조절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역사적 맥락과 연관지을 수 있다. 아직까지 지방의회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역할이 크다는 인식으로 인해,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고, 동시에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해 더욱 신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지방정부 신뢰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이 갖는 지방분권 인식이 둘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2년에 실시한 온

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두 주체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선의, 진실성의 신뢰성 요소들은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정(+)의 방향으로 미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정부 두 주체의 신뢰성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이다(김정숙·조윤직, 2020). 둘째, 지방분권 인식 역시 지방정부 신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정(+)의 방향으로 미치고 있다.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정책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시민들은 지방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Lee & Suh, 2021; Ligthart & van Oudheusden, 2015). 셋째, 지방분권 인식은 지방정부의 두 주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대해서만 조절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때 지방분권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지방정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지방의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증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선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신뢰성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선의와 지방분권 인식이 더욱 높은 지방정부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지방분권 인식의 조절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만 유의미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정부 두 주체가 역량 강화를 통해 균형감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지방분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그 자체로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방정부의 주체들이 가진 신뢰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방정부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분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단년도 설문조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석결과의 정밀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시계열 데이터에 비해 단년도 데이터는 특정 연도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에 의해 주민들의 인식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단점을 지닌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동일한 설문조사를 시계열로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단년도 설문조사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혜진. (2018).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2): 67-99.
- 김관보·채경진·손호중. (2013).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4): 267-287.
- 김대욱·이승중. (2008).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43-62.
- 김정숙·조윤직. (2020). 신뢰받는 정부의 특징: 실험설문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4(4): 199-232.
- 김정숙·정다정. (2019).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1): 87-112.
- 김정숙·최선미. (2019).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접근성,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3(1): 185-220.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1.12). 「2021년도 대국민 지방분권 의식조사」.
- 박정호. (2014). 지방정부의 정보제공이 신뢰와 서비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291-313.
- 박종민·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3.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7.
- 서재권·이병재. (2021). 중앙-지방 간 정부신뢰의 탈동조화? 부산과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33(4): 153-183.
- 서정욱·김동욱·김주경. (2021).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3): 253-282.
- 오경민·박홍식. (2002).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113-137.
- 왕혜진. (2022). 시민들의 정부 대응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도시환경과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21): 273-314.
- 유두호·유나리. (2020). 지방정부 권한 확대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18): 261-296.
- 유익환. (2015).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

175-188.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 311-335.

정광호·이달곤·하혜수. (2011).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45(4): 181-202.

최영출. (2013). 지방분권 수준과 영향요인 관계 분석.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7(2): 369-389.

최예나. (2016).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민들과 선출직 기관들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3): 69-88.

현승숙·이승중. (2007). 주민접촉에 따른 지방정부신뢰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93-112.

Albrecht, S. L. (2002). Perceptions of integrity, competence and trust in senior management as determinants of cynicism toward change.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n Interactive Journal*, 7(4): 320-343.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 J.: Rutgers University Press.

Carnevale, D. G. (1995). *Trustworthy Government*.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Colquitt, J. A., Scott, B. A., & LePine, J. A. (2007). Trust, trustworthiness and trust propensity: A meta-analytic test of their unique relationships with risk taking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4): 909-927. doi:10.1037/0021-9010.92.4.909

Downe, J., Cowell, R., Chen, A., & Morgan, K. (2013). The determinants of public trust in English local government: how important is the ethical behaviour of elected councillor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9(4): 597-617.

Finer, S. E. (1970). *Comparative Government*. London: Allen Lane, The Penguin Press.

Fitzgerald, J., & Wolak, J. (2016). The roots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in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7(1): 130-146.

Fricker Jr, R. D., Kulzy, W. W., & Combs, D. J. (2014). *The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rust in government*.

Gamson, W. (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111.: Dorsey Press.

Good, D. 1988. *Individuals,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rust*. In D. G. Gambetta (Ed.), *Trust*: 131-185. New York: Basil Blackwell.

Grimmelikhuijsen, S. G. (2010). Transparency of public decision-making: Towards trust in local government?. *Policy & Internet*, 2(1): 5-35.

Grimmelikhuijsen, S. G., & Meijer, A. J. (2014). Effects of transparency on the

- perceived trustworthiness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Evidence from an online experi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4(1): 137-157.
- Grimmelikhuijsen, S., Porumbescu, G., Hong, B., & Im, T. (2013). The effect of transparency on trust in government: A cross-national comparative experi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3(4): 575-586.
- Hasel, M. C., & Grover, S. L. (2017). An integrative model of trust and leadership.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38(6): 849-867.
- Hetherington, M. J. & Nugent, J. D. (2001). *Explaining Public Support for Devolution: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134.
- Houston, D. J., & Harding, L. H. (2013). Public trust in government administrators: Explaining citizen perceptions of trustworthiness and competence. *Public Integrity*, 16(1): 53-76.
- Howard, J., & Sweeting, D. (2007). Addressing the legitimacy of the council-manager executive in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tudies*, 33(5): 633-656.
- Jennings, M. K. (1998). *Political trust and the roots of devolution*. In V. Braithwaite & M. Levi (Eds.), *Trust and governance* (pp. 218-244). Russell Sage Foundation.
- Kelleher, C. A., & Wolak, J. (2007). Explaining public confidence in the branches of state government.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0(4): 707-721.
- Kim, S., & Lee, J. (2012). E-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2(6): 819-828.
- Kiyonari, T., Yamagishi, T., Cook, K. S., & Cheshire, C. (2006). Does trust beget trustworthiness? Trust and trustworthiness in two games and two cultures: A research not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9(3): 270-283.
- Lee, J. H., & Suh, J. (2021). Decentralisation and government trust in South Korea: Distinguishing local government trust from national government trust. *Asia & the Pacific Policy Studies*, 8(1): 68-93.
- Lieberman, J. K. (1981). *The litigious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 Ligthart, J. E., & van Oudheusden, P. (2015). In government we trust: The role of fiscal decentraliz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7: 116-128.
- Lind, E. A. (2001). *Fairness heuristic theory: Justice judgments as pivotal cognitions in organizational relations*. In J. Greenberg & R. Cropanzano (Eds.), *Advances in organizational justice* (pp. 56 - 88).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cFall, L. (1987). *Integrity. Ethics*, 98: 5-20.
-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 Porumbescu, G. A. (2015). Using transparency to enhance responsiveness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 can it work?.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47(3): 205-213.
- Rousseau, D., Sitkin, S., Burt, R., & Cam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doi: 10.5465/AMR.1998.926617
- Schoorman, F. D., Mayer, R. C., & Davis, J. H. (2007).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Past, present, and fut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2): 344-354.
- Sekhon, H., Ennew, C., Kharouf, H., & Devlin, J. (2014). Trustworthiness and trust: influenc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30(3-4): 409-430.
- Tomlinson, E. C., Schnackenberg, A. K., Dawley, D., & Ash, S. R. (2020). Revisiting the trustworthiness-trust relationship: exploring the differential predictors of cognition and affect-based trus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41(6): 535-550.
- Uslaner, E. M. (2001). *Is Washington Really the Problem?*. In Hibbing, J. R. & Theiss-Morse, E.(eds)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ng, X., & Wan Wart, M. (2007). When public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leads to trust: An empirical assessment of managers' percep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2): 265-278.
- Zmerli, S., & Newton, K. (2017). *Objects of political and social trust: Scales and hierarchies*. In *Handbook on political trust* (pp. 104-124). Edward Elgar Publishing.

김 정 숙: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정부와 제3부문 관계, 조직 및 공공관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 유형화에 관한 연구: 도농복합시를 중심으로(2024)”, “스마트시티 정책의 유용성, 공공성, 지방정부 신뢰가 주민의 증세 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2024)”,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23)”, “What Determines the Revenue of Development NGOs in South Korea?: Exploring Differences between Revenue and Age Groups(2023)” 등이 있다(jskim79@chungbuk.ac.kr).